

D - 1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선택형 수능이 최초로 도입된 올해 국어영역에서는, 당연하게 실전 전략에서 상당한 초기의 혼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1. 실전연습을 위한 평가원 기출이 없다는 점
2. 22예비평가가 유일한 평가원 기출이라는 점
3. 22예비평가 이래 다양한 신유형 출제 시도가 보임
4. 올해 학생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실전연습 경험이 역대급으로 부족하다는 점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7~22 평가원 기출과 + ebs 적용
+ 사실로 실전연습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음

2. 근본과 기본기는 결국 어디서든 통합. 따라서 한 장파이널을 기본으로, 기존 수업 필기 눈복습, 손복습, 원론서 눈복습으로, 매 문제 풀이마다 자세 교정한다는 느낌잡기

3. 05~13 입문자 과정 (수강생 전원 무료 제공)
 4. 14~16 중급자 과정 (수강생 전원 무료 제공)
- 위의 3,4, 과정 필요한 학생들 필수 활용

5. ebs 및 이감 특강반
(9월 및 추석 전후 개강, 수강생 전원 영상 무료 제공)

본 교재의 흐름을 따라서, 심상훈련을 통해 실전 연습 효과의 극대화를 경험하도록 하자.

본 교재의, 학습의 순서

1. 수능 당일 대비 행동 준칙
2. 한 장 파이널 정독
3. 한 장 파이널 손필기, 머리 입력 및 인출 연습
4. 취약점 분석 및 해법 모색
5. ~21기출 + 22예비 적용 연습 및 실전 흐름 잡기

*ebs 연계지문 정리

6. 올해 교육청 및 사설에 실전 적용 연습 하기
7. 실전 연습 직후 문제점 분석 및 해법 모색
8. 22예비평가 및 평가원 학습방법 안내 강독
9. 6평에서 안내 했던 풀이 순서 관련된 내용 (6평 리허설 자료 활용할 것)

‘평가원 그 자체를 보라’

배인호 선생님을 믿고 따라온 학생들에게

2022 수능 국어 백분위 100을

가장 쉽고, 빠르고, 확률 높게 성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수험생도 가지지 못할,

가장 강력한 도구.

본 자료는 수업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파괴력을 갖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오르비와 수만휘 포만한 등 주요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 강의는 매일 1강씩 배포 중입니다.

자료 문의 및 안내 : kicekor.com

배인호 선생님 연구실 : 010-8388-5403

평가원 그 자체 인강에서 가장 가까운 배인호 초격차 국어 미리보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영역

과거는 현재가 되고, 미래로 이어진다.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이제, 곧.

코로나 국면으로, 모든 것이 뒤엎긴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남겨야만 했다.

문득, 작년의 9평 리하설, 파이널.

내 생명을 갈아 넣었던 그 자료는

그 시점, 완벽 그 자체였다.

하지만, 나는 한차례 더 성장했고,

아니 진화했으며, 불연속점으로 초월했다.

양자역학의 세계가 그렇듯이.

올해 역시 9평 리하설, 수능 대비 파이널은,

올해 수능의 흐름에 맞게 개정되어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수강생들에게 배포된다.

그리고 6평. 6평은 작년부터 이어진 흐름에

올해 수능의 변화된 흐름을 예측하게 하는 결정적 단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에게 수능날 하게되는 시행착오를 미리 겪게 하는 것.

우리 고객들의 학습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공부한 '필기'에 대한 눈-뇌-필요시 손 복습
2. 지금까지 공부한 '전체 영역'에 대한 '원론서' 눈-뇌-필.손 복습
3. 지금까지 공부한 전체 영역 중 '부족' 파트에 대한 영상 복습
4. 이를 바탕으로 시험장에 들고가는 마지막 1장 파이널 '손'복습 또는, **나만의 한 장 파이널 제작 (인증필수. 인스타 인증도 좋다)**
5. 그리고 나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주 2회 이상의 실전 연습
6. 가급적 격일, 가능하면 매일 실전 연습
7. 매일의 실전연습에서 두들겨 맞고, 고치고, 다치고, 회복하면서, 우리의 면역계가 그렇듯, 신체가 그렇듯,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원인을 찾아 극복하고 해결하는 과정.
8.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정답이자, 치열하게 살아 온 당신을 위한 위로.
9. 고객님. 아니... 우리 제자들아. 우리의 미래들아. 솔직해지자. 왜 '노오오오오력'을 비꼬는 풍조가 주류를 이루고, '노력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될까?

입장 바꿔보자

- #1. 사람들은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
- #2. 사람들은 믿는 것이 사실이길 바란다.
= 답.정.너
- #3. 사람들은 노력하기 싫다.
- #4. 사람들은 남들이 나보다 잘나는 것이 싫다.
- #5. 사람들은 남들보다 내가 잘나야 한다.

이쯤 되면 답이 보인다.

유능한, 남들보다 앞 서서 세상을 살아 갈
 그래서 세상을 끌어갈 우리 고객님들은 공감, 납득 할 것이다.
 유능하든, 무능하든,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성실히 살며,
 노력해서,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의 선택이라면,

인성이 터진 애들은 유능, 무능 할 것없이 ,
 '다 같이 망하자' '다 같이 가난해지자'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인생
 조지자' 이게 전략이다.

더 인성 터진 놈들은,
 '나는 열심히 할거고, 니들은 뒤떨어지게 만들려면?'
 "노오오오오력 같은 걸 왜 하나?"
 따위와 같은 개소리를 하고 다닐 거다.
 남들은 인생 던지고, 그런 남을 이용해먹고, 나는 열심히 하면 내
 가 더 성공하고, 남이 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보자.
 시간과 노력을 안 했는데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뉘소리 좀 작작 하고 다녀라 뉘소리 좀 작작 듣고 다녀라

그런 것은 없다.
 로또?
 로또 당첨자들은 그 돈을 '소비/투자'해 본 경험이 없어, 결국 로또
 당첨 이전 보다 더 가난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 확률이 높다.

결정적으로, 수능 10문제 찍어 맞출 확률이 로또 당첨 확률 보다
 낮다. 나라면 차라리 재수 하고 로또 맞겠다.

코인 대박, 주식 대박.
 토사장, 코사장해서 누구 등쳐먹은 사기꾼이 아니라면
 왜곡일 확률이 매우 크다.
 그 시장에서 매일 이기는 승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있다면 15년 전에 카카오를 창업했거나, 10년 전에 스타일 난다
 에 투자 했다. 이미 한국의 워렌 버핏이고, 손정의다.

강남 부동산 질러놓은 사람들은 앉아서 돈 번 것 아니냐고?
 맞는데, 그럼 나는 왜 안/못 샀을까?
 그게 그 시절 나는 헛똑똑이고, 세상을 모른 것이다.
 나는 내가 당연히 1타가 되어서 수십억은 벌 줄 알았다.
 강남 부동산 5억 짜리가 2년만에 15억 가는 것은 내 머리로는 말
 이 안 되었다.
 경제와 투자에 대해, 시대에 대해 읽는 눈이 딱 그 수준
 그러니 10년 전 비트코인 120만원에 사서, 80만원에 팔았다.
 지금은 한 4000~8000만원 가더라.

1200만원 투기해서 800만원 건졌다.
 존버 했으면, 비트코인이 인플레 헛지 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평가원 지문을 통해 길러진 통찰력이 그때 있었다면
 4~8억은 벌었겠지.

아, 자기 인생.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한다고?
 내 인생 내가 조절라니까 끈대 틀딱 아가리 하라고.
 ㅇㅋ

근데, 내가 80살 인생의 절반 40살이 되어보니,
 인생도, 인간도, 결국은 자연의 섭리대로 살더라
 정규분포 확률. 모든 것은 그 정규분포에 수렴한다.

결국은, 내 노력과, 시간 투자와, 방향성 조율은
 100%짜리 정답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갈 확률을 높이고 있고,
 기나긴 인생의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면 어느새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벌어져있다.

실패한 인생을 사는 이들은 '결국 너도 실패 할 거야'
 라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성공한 인생을 산 이들은 '결국 너도 성공 할 거야'
 와 같은 조언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어떤 인생으로 확증편향할 것인가?
 패배자의 조언에 패배자의 삶으로 확증 편향할 것인가?
 승리자의 조언에 승리자의 삶으로 확증 편향할 것인가?

대단한 삶을 살진 않았다.
 하지만 내가 20대에 일궈내었던 spec은,
 재벌 3세나 가능한 수준의 spec이었다.
 별 것 없다 인생. #1.자아성찰 #2.시대성찰 #3.방향 #4.노력
 나는, 네 성공에 내 인생과 삶 전부를 걸었다.
 너는 무엇을 걸래?

이제 수능 국어는. 배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I. D-7~ D-60 행동 준칙

1. 모든 수험생의 실력. 평소의 50% 내외 실력.

긴장, 압박, 체력과 정신력의 고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 자리.

100%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2. 철저하게 파이널의 매일 매일을 '수능 시험 당일'로 살아가라.

- 매일 실전 연습 + 실전 대응 확립

- 지금까지 모든 공부 복습 + 오답 정리

3. 코로나. 지금이라도 승부 보라

- 하루 4시간, 매일 1주차씩 2~4주 꾸준한 매일의 피드백과 성찰, 교정, 체화를 진행한 학생들은 어김없이 1등급으로 수렴했다(19~21 중도 합류 수강생 중 95%)

너희가 원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니냐?

- 코인이 아무리 떡상해도, 일단은 사고, 버티야지

- 로또가 아무리 맞더라도, 일단은 사고, 확인하고, 당첨금을 받아야지

1등급, 백분위100이 쉬워보이니?

전국 65명, 148명, 151명이 쉬워보이니?

못할 것 없다.

인생은 확률.

오늘의, 순간의 선택이.

인생 성공/실패의 확률 함수 그래프의 미분값을 결정한다.

4. 실전연습

① 시간관리 (Lap time check)

ex) 8시 50분에는 몇 번 정도를 풀고 있을 것이고... 9시 20분에는 몇 번 쯤을 풀고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더 늦거나, 더 빠르거나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기계적으로 실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

② 상황노출. 대응. 해법 찾기. (P.C.S) 명문화/문서화

ex) 다양한 실전 상황에 노출되고, 문제점, 원인, 해결책을 찾고 명문화하여, 각인. 정리.

문서화 해라

인간 문명도 '문서'화 된 역사부터 인정한다

이제 수능 국어는. 백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5. 복습

① 눈 + 머리 복습 : 수업 필기, 원론서

② 손 + 머리 복습 : 한 장 파이널, 틀린 문제들, 파이널 과 정, 부족부분 보충영상 수강

6. 멘탈

평정심 유지를 위한 방법 찾기. P.C.S

그래서 플래너 쓰고, 결과 기록 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화 하고

그러다보면 초인지/메타인지/상위인지 능력이 생겨나며 어느새 답을 찾고 있을 거다.

A "아 더워! 화가나네!"

B "몸이 담긴 물이 더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요."

C "물이 더워지고 있으니, 도망가거나, 열원을 제거해야지"

A의 인생을 사느냐

B의 인생을 사느냐

C의 인생을 사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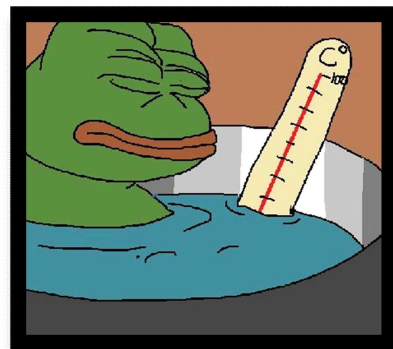
오늘의 귀찮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네 자세가 앞으로의 네 인생을 결정한다.

7. 체력

심박수 60% 내외의 운동(4METs 내외) 3~4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건강 악화 => 수면/집중력 패턴 깨짐 => 학습량 깨짐 => 성적/공부량 깨짐 => 멘탈 깨짐

원인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는다?



pepe in the boiling water¹⁾

1) <https://www.memeatlas.com/pepe-memes.html>

8. 9평 이후 유의사항

#1. 거울 보고 놀라지 마라 너 원래 그렇게 생겼다.

1학년 때는 다들 의치약함의대, 스카이 갈 줄 알았다.
 2학년 때는 그래도 인서울 할 줄 알았다
 3학년 3월만 되어도, 그래도 인서울 지거국 가능할 줄 알았다.
 이제 되니, 현실이 보이니?
 카톡 프사, 인스타에 보정 뒤지게 해서 올린 그 사진이 자기
 얼굴이라고 믿은 거야?
 사실을 믿자
 믿는 것이 사실이길 바라지 말자
 자신의 바람이 사실이 되길 원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
 자

그것이 세상의 원리이자 룰이다.
 그 당연한 이치를 어기려고 하니 터무니 없는 것들을 벌이고
 사는 것이다.

9. 9평 이후 유의사항

#2. 100%는 없다. 하지만,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할 것은 없다.
 매 순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하는 것을 한다면 확률은 결국
 높아진다.
 그것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등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

10. 정리

- #1. 6평 바탕 실전 리허설 자료를 만들자
 - 6평 리허설 교재 참조 (분실한 학생들은 PDF 요청하여 받
 자)
- #2. 이 자료 뒤의 한 장 파이널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작성하
 여, 인증받자 (뒷 쪽 한 장 파이널 그대로 베껴도 좋으니, 백
 지 한 장에 작성하여 시험장 들고 들어갈 것 준비. 이후 관리
 독에 사진 찍어 올릴 것)
- #3. 모의고사. 모의로 시험을 응시하는 것. 그게 내 확률의 전
 부가 아니라, 가능성의 한 순간이 나타나는 것 뿐. 그것이 현
 실이 되는 것이 싫다면, 감정 가라 앉히고, 문제 분석, 원인
 분석, 해법 찾기
- #4. 수능을 미리 겪기. 수능 D-1, D-7 수칙 지키면서, 미리
 수능 상황 겪어서, 시행착오 줄이기.

할 수 있다.
 힘내라.

#2. 한 장 파이널 정독

舊언어영역 & 일반에게 국어 문제풀이란?
 (당신의 수능 국어가 안 되던 이유)
정보화 혁명 시대

기존 우리의 수능 국어 문제 풀이 사고의 흐름

- ❶ 지문을 '나름대로' 읽고(독), 이해(해)하고, 모든 내용을 기억하려 한다.
- ❷ 기억한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선지 하나 하나의 정오를 판단(주장)한다
- ❸ 그 과정에서 기억이 애매하면, 지문으로 돌아가 선지 판단의 근거를 찾고, 선지를 판단한다.
- ❹ 단어 하나, 조사 토씨 하나, 숫자 하나 틀려서 실수하거나
- ❺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 ❻ 이해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거의 그냥 찍거나
- ❼ 겨우 겨우 정답 찾아 넘어 가거나

위의 사고 흐름 및 문제 풀이 흐름은

평가원이 요구하는 사고 능력 중 극히 일부
 즉, 주장(선지 판단) + 근거(지문 내용 근거)
 라는 사실적 사고 수준의, 내용 일치 차원.

소위 일반인이 말하는 '논리적/논증적' 사고 역시도 매우 일부에 불과한 수준.

수능 도입 초기의 관점 차원.

즉, 30년 가까이 지난 구시대적 관점 & 정체된 관점.

27년 차이. 수능 초창기 수준의 관점 (1994~2021)

조선 개항(강화도 조약 1876)

조선 멸망 시작(일군 주둔. 한일협약 1904)

28년 차이.

개화기 조선, 전근대적 삶을 살 것인가

시대에 적응, 생존, 번영을 이룰 선택을 할 것인가.

수능은 시력 문제, 논리 시험이다? (구시대 발상)

no! 수능은 논리적 사고를 포괄하는,

정보처리 능력 전반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현시대 발상)

이제 수능 국어는. 배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新수능 국어영역(개정교육과정)&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의 mind set**
 (당신의 수능 국어 해답)
4차 산업 혁명 시대

수능 국어 영역의 성격 = 국어과 + 도구교과 성격 기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능.력 측정 시험

- 이성적 정보처리 - 비문학
- 감정적 정보처리 - 문학
- 정보의 내용 파악 중심 출제 - 독서
- 정보의 구조 파악 중심 출제 - 화작문
- '국어과' 성격의 논리적 사고 - 문법

글 = 문자 (구시대 관점)

그렇다면? (4th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관점)

글 = TEXT = 정보전달 수단 = 매체

글 = 표, 그래프, 도식등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

그래서 평가원은 독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음

총체적인 정.보.처.리.능.력

그렇다면? 평가원이 의도하는 실전적 정보처리 의도는?

전제 1. 80분 45문제
 = 시험은 기본적으로 타임어택

전제 2. 시간 안에 적용할 수 없다면 결국 무쓸모

전제 3.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
 = 이 시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

따라서,

평가원의

수능 국어에 대한 mind set

- ❶ TEXT의 구성원리에 기반하여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 ❷ 정보가치 판단 바탕
주제 중심으로 정보처리하며
- ❸ 정보가치와 주제는 구조와 의도에 따라 결정됨

즉,

- 1. 주제(정보가치수 내용) 중심으로,
- 2. 정보 간 구조와 관계 파악을 하며,
- 3. 의도와 설계를 바탕으로
- 4. 처리된 정보 / 이해된 정보에 기반하여
- 5. 출제자가 의도한 사고 흐름을 잡으면
- 6. 정답 선지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하나의 사고 절차

독서(평가원의 관점觀點)

- 1. 주제 위치 : 첫 단락 + 첫 단락 끝부분 + 두 번째 단락 첫 부분 집중 ⇒ 전체 연결되는 주제 흐름 잡기
- 2. 구조 - 문장 S O C Ad V 처리 + 반복, 강조 체크
- 3. 구조 - 문단, 글, 글의 구성원리, 글의 전개 방식+표지(지시/연결),
- 4. 최근 지문의 출제양상 : 정보군집 단독문항 출제, 상호텍스트성 - 한 지문에 여러 주제 복합, 원리 지문 - 이해 적용 요구, 필요시 표, 그림, 그래프 등으로 그려 처리 요구, 수학 공식 이해 적용 요구, 인과/원리는 무조건 정보 가치 높음

독서가

막히는 P(problem)

이유 C(cause)는?

- 1. 내 독해력의 문제가 아님. 평가원 지문 문제임!
- 2. 정보압축, 생략, 변형, 기출/ebs연계 과정에서 왜곡⇒ 결국 지문의 논리적 모순, 정보량은 폭발.
*4차 산업혁명 특징에 맞는 정보처리 요구
*제발 좀 1994학년도 시절의 정보처리 방법

언어영역 vs 현 수능 국어영역 요구 능력

혼동 좀 그만. 이젠 논리'만' 묻는 시험 아님.
일치, 1:1대응... 죄다 '라떼는'유형.

그 결과 시간 부족
+ 20-6월 만점자 65명
(대치동 200명 마감 반에 만점자 1명도 없음)

S(solution)

독서가 막히면? 이렇게!

수능 독서 정보처리 안 되는 문제와 원인

1. 80분 안에 절대 처리 불가할 정도로 정보량 폭발
2. 그런데 정보처리에 충분한 내용은 또 불충분
3. 완결성 떨어지는 지문

배경은?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정보 성격 그대로 출제+처리
Big Data ⇨ Data Structure 분석 ⇨ Crawling

네이버에 '2020-9월 소유와 점유 지문' 검색해 보면,
시스타 소유 나눔.

법정스님 무'소유', 구운몽 양'소유'

뭘 상관임? 님 그거 읽음? 그냥 넘기고 선택/집중.

수능 지문도 똑같음.

절대로 모든 지문 100% 처리 불가한 정보량 낸 이유
생각.

언제까지 언어영역 시질 문제 접근법을 쓸거임?

해법은?

1. 주제, 즉,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2. 구조, 처리
3.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1년 6개월만 지나도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정보량이
새로 생기는 시대임. 절대로 모든 정보 완벽 처리
불가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대상은? 당연히 정보가치
높은 정보. 동시에 그 정보간의 관계, 즉 구조 처리
가 되어야 유의미한 정보 처리 됨.

*다음의 한 장 파일 내용은 21까지의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
제작. 6평 이후 22대비 한 장 파일 갱신 예정 감안하여 활용
바랍니다.

1p 정보전달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평가원 관점 觀點)

1. 지문 설계 - 독서 내용+구조
2. 1st 문항 설계 = 주제+전개 방식(내용<구조)

3. 2nd~3rd문항 설계에 따라 막히면?

⇨ 구조에 집중

단순한 일치, 정보 확인, 정답 근거 판단 논리적 사고
능력은 기본 중 기본. 이.제.는

정보 가치 + 구조 처리 역량까지 필요!

4. 괄호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다수 중요

5. 신유형이라 판단되면?

⇨ 구조에 무조건 집중

cf) 청중의 반응

정보처리규격 : Q(의문), 경험, 배경지식, 긍정/부정 가치판
단, 의문, 추측, 추론 ... 처리

cf) 자료 활용

지문의 주제-구조 연결임. 절대 새로운 내용 없으며, 지문의
주제-구조에 따른 정보처리를 얼마나 평가원의도에 맞게 처
리했느냐의 싸움

6. 지문 정보처리 규격 ex) 인사말, 출처, 서적 인용, 전문가
견해, 수치 통계 자료, 등

feat. 평가원의 **관점-觀點** +
배인호t **실전tip.**

1. 괄호에 집중하라

- 문항 설계상 '괄호 = 화법의 특징적 정보구조'
- 따라서, 현재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은 '(괄호)=정답선지 관련 확률 100%'

2. 막히면 내용 일치가 아니라 구조 처리

- 내용 처리는 이미 독서에서 충분히
- 따라서, 내용+구조라는 정보의 요소 중
- 구조 처리 능력을 화작에 출제-설계하기 시작하면서,
- 화작 난이도, 시간, 정보량 모든 부분에서 폭발
- 대부분의 기존 접근 틀 / 학생들은 적응 못함

3. 더 이상 논리'만'묻는 시험이 아니다.

4. 정보처리 능력 = 정보 가치 판단 + 정보 구조 처리 =
압도적 정보량 처리능력

2~3p**상호작용 화작통합형**
정보처리공식
(평가원 관점觀點)

1. 대화(상호작용 유형) ⇨ 전체 관통 주제 + 흐름 + 화제 전환 + 여전히 **구조, 전개 방식** 집중처리

2. 대화 특성상 정보량 터짐 + 화제 전환. 따라서, 문제부터 보고 **지문-문항 전반 설계 파악 후** 접근으로 시간, 발췌독 횟수 대폭 감소 필요

3. 특이 유형

cf)고쳐쓰기 (관련 개념 : 글의 구성 원리 = 통일성-포괄성/일관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바탕. 문법요소 = 피동 사동, 중의성, 부정, 중복 표현 등)

- 정답 선지- 맞춤법 확률 5% 미만(그것도 언어영역 시절)

- 정답 선지- 글의 구성 원리 80%

- 정답 선지-macro 문법 파트(그 중 문법요소 파트)15%

- 따라서, 고쳐쓰기 유형은 매크로한 문법 + 글의 구성 원리에 초점 두고 지문 뚫기

cf) 표현하기 (원래 문학 문항 따라서, 내용+형식/표현. <보기> 조건 확인 후 발췌/기존 잡아 처리)

cf) 자료 활용 유형 (원래 작문 유형이나 통합형 출제 시 대부분 '주제' '구조' '정보 가치 높은 선지' = 정답

3~4p 설득의 화작문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독서 지문의 10% 이내만 차지하는 ‘논설문’ 유형 특성
작문 유형으로 출제 따라서... 묻는 것은 철저하게

1. 논증구조

필수 : 주장+근거

덧붙이면 : 전제/도입/배경+ 주장+근거 +예시

과거, 서울대 논술에서는 없으면 **감점**

연세대 논술에서는 있으면 **가점**

전제+주장+근거+예시+ **예상 가능 반론+재반박**

2. 비판 유형

우리는 비판을 할 줄 모름. 따라서, 너무 간단

정답 유형1. 상대가 ‘언급’(범주)

정답 유형2. 상대의 주장(반대 서술)

논술 기준, 전제 비판, 주장 비판, 근거 비판, 예시 비판,
전제와 주장 관계 비판, 주장과 근거 관계 비판, 타당성,
적절성, 가치 우열 등에 대한 비판이라는 평가원의 틀이
있으나 학생 체감 zero. 그래서, 상대방이 언급한 내용(특히
주장)인지, 상대방이 언급한 주장의 반대 서술인지만
판단해도 95% 정답.

21-9평 오답률 top1 비평교육&이본교육

현, 평가원 연구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학문적 성취
출제 배경

1. 해석상 미학적 근거 + 문학 교육 목표 합치
2. 문학적 관습의 논리적 근거 확립

비평문

1. 작품 감상의 절대적 준거 : 비평문>작품 내용>보기
2. 문학 개념어 기반 독해
3. 필요시 독서 구조
4. 작품 해석이 제시 ⇨ 철저하게 작품 연결 ⇨ 문항 ⇨ 정답 선지

이본교육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작품의 변이, 장르적 변이의
C 원인파, E 결과와, 사고의 절차를 다룸

문학'서사'장르 정보처리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상황
3. 인물(=성격) + 내면 심리 파악이 핵심
4. 특이한 소재, 특이한 전개 방식, 특이한 배경

***첫 부분 구성 잡기, 인물 사건 배경 preset 잡기

*인물多 주인공 서사에 집중

*최근 상호텍스트성을 한 작품 내의 대칭 구조에

집중시킴

*정보량 터질수록, 위의 정보 가치 높은 내용 처리 필요

*서사 교육 목표 : 삶의 총체적 이해 + 삶의 고양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 간접 체험

*서사 장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고양되길 바램

*서사 장르 감상하며 뭔가 느끼면 = 100점 줌

*그러려면? 일단 인물 내면 파악, 사건/갈등 원인 및 장면
상황 파악, 전반적 줄거리 파악.

*주제는 매우 전형적 서사 흐름 + 구조

문학'서정'장르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비문학(=이성) + (문학=감정) = 완전한 인간

cf) 15수능 칸트 미감적 판단력, 주관적 보편성, 미감적 공동체 ⇒ 문학적 관습

문학을 왜 하나요? '국어'시험이니까. 논리학 시험 아님!

서정 장르 교수학습 목표 : '공감 능력 향상'

= 정전 교육목표. 따라서...

1. 서정 장르 주제 = 정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반응)
⇐ (문학적 관습) ⇐ 상황/분위기

2. 문장 구조 S O C Ad V & 수식, 반복, 강조

3. 전체 구조, 사상 전개 방식, 특이한 소재, 제목 집중

4. 문학적 관습, 전형적 주제 매우 중요

- 개념어 문제 10% 내외

- 내용-공감-감정 처리 문제 90%

- 주제 관련 키워드 선지 정답 확률 87%

(14~20기출 14문항 중 11문항)

5. 선지 판단은, 주제로 좁히고 필요시 발췌독

*나라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 게 출제 목표

고전시가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1. 서정 장르 접근법 베이스

2.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 한자어/문맥 추론

3. 전형적 주제

cf) 유교적 가치관, 그러니까 충+효, 충=연군지정, 충=관직 나가야지 = 시험 치려면 학문해야지 - 학문=수양해야지 = 학문=수양하려면=자연친화 - 자연친화 하다보면 또 몰아일체. 매우 뻘함

cf) 고려가요 - 삼분후 (3음보, 분절체, 후렴구)

근데 이판 개념 1도 안 중요함. (시대에 따라 개념이 중요해지는 교육과정/학계 흐름이 있음. 올해는 아님)

*사랑 똑같은. 나라면, 그 시절에,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 관직 나가고 싶구나, 근데 자연도 좋구나, 방황했겠네. 자연 놀다 보니 좋구나, 무릉도원이 여기구나! 맨날 이런 거임.

*시인/화자에 공감 = 100점 주는 게 출제 목표

문학'기타'장르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수필

1. 시 + 소설 + 독서 구조 특징

2. 주제 구성 문제 소재 표현 5요소

3. 깨달음이 주제. 초반부 흐름에서, 마지막 단락 중요

4. 주제 + 흐름 = 깨달음 잡기

희곡-시나리오

1. 서사 장르 기반

2. 장면으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함

3. 따라서, 장면 상상 필요, 지시문(내면 심리), 해설(압축 제시, 정보압축. 정보 가치 높아짐) 매우 중요

4. 장면에 대한 상상 필수

과학기술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2019수능 역대급 지문 우주론 - 과학기술 아님!
(A단락+31번 문제만 과학기술도 아니고 국어과 기반 과학기술'적'사고)
사실은 철학 지문임
2018-6월 동양철학-법제 개혁론
2018-수능 서양철학
2019-6월 서양철학 - 동양 전래
2019-수능 서양철학 - 동양 전래
이 흐름임. 제발 좀. 우주론? 과학기술? 절대 불가.
그래서 만점 148명. 다 수능 터짐. 야..나두. 야..너두?

그렇다면, 최근 평가원 과학기술 지문 특징과 문제 원인

1. 정보량 폭발
2. 완결되지 않은 정보(생략, 압축, 변형 등의 과정에 왜곡/논리적 모순 발생)

해결

1.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 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원리/수학 공식 무조건 처리
4. 때때로 표/도식화/그림 필요

철학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과학기술 지문 내용에서 보이듯
철학의 지문의 흐름은 위에서 언급 + 계속 이어지는데
철학 ⇨ 현상 만들
따라서, 현상의 본질이고, 이 시대정신들 통찰하길 원하는
평가원 교수님들의 바람.
동양 = 서양철학 비교 대조 및 발전 흐름

예를 들면
관념론으로 시작했던 인류의 사상은
신학-철학-자연과학으로 이어지며 발전

특히, 경험주의/경험론의 발달로 지금의 변화를 가져 옴
문제는 동양은 쇠국하다가 뇌피셜하다 망함.
(청/조선/중화사상)

이 = 형이상학 = 원리, 진리, 이상, 도덕, 신, 이데아, 성리학

기 = 자연과학 = 사물, 대상, 구체, 교정 대상, 성리학 미만
잡다학문

이 흐름 잘 잡으실 것.
특히나 2019 수능 역대 지문인 우주론은 위 흐름임

경제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 심지어 교육청 연계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금융’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
 2018-6 통화정책 (이 지문부터 특이점)
 2018-수능 정책수단-오버슈팅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바뀐 1997 IMF의 대표 현상 환율 폭등 현상임)
 2019-9월 CDS-P (기존 경제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이 2008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파생상품임)
 2020-3월 주식회사-순환출자 (본질은 ‘금융’자본주의의
 모순과 태동에 대한 원리임. 이때 나는 3년 안에 나온다
 했는데 3개월 안에 나옴)
 2020-6월 대망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제정책
 이때 다 터져나감
 2020-수능 BIS 지문(적중)
 올해는? (앞으로 3년 내 출제 예상)
 ebs에 ‘금융’자본주의 주제 꽃음

1. 중상주의-고전학파-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 흐름
2. Q.E(양적완화) 원리 다룰 거임
3. M.M.T 현대 통화 이론

결론은, 위의 경제 변동 원리 인과-흐름 잡자!

법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경제 지문 출제의도에서 보이듯,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한
 글 문맹이 아니라 ‘실생활지식 문맹’
 관습법 - 판례법 - 대륙법 (법계) 특징

따라서, 보통 법률 지문의 구조와 내용은

1. 예시-원리로 초반부 세팅. 원리 세팅이 중요
2. 원리의 사례 적용
3. 문제는, 성문법 적용 과정에 사례별 문제가 따름
4. 그 해결책

초반부 주제 예시-원리(법 률)세팅	지문 구조는 대체로 원쪽 구조임 그런데? 왜 2020-9 소유 점유 어 려울까? 하향식 독서 모형의 부재 때문!
후반부는 P-S P-S P-S P-S ... (계속 반복)P-S	

상호작용식(feat 하향식) 좀 해.
 하향식 독서 모형 -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처리
 상향식 독서 모형 - 단어, 문장, 문단, 글, 글에만 집중하여
 정보 처리
 상호작용식 - 둘 다

실생활 연결 지으면 개 쉬워짐

논리 정보처리 공식 (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2019수능 가능세계 복수 정답 시비는,
평가원 수능 국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임

최소한, 출제자가 유도한 사고 흐름으로
정답을 골라야 점수를 주는 시험에서
시험 옳니 그르니 같은 논쟁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됨?

물리도, 논리도, 언어도, 경제학도 아닌
수.능.국.어. 즉, 국어교육학 베이스의 2015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임.

내가 정치, 물리, 의학, 코로나에 대해 떠들면 안 되듯,
마찬가지임.

그러면 수능 국어 논리 지문의 특징?

1. 평가원 기출 연계 + ebs 연계 전제
2. '고3' 수준에서 처리 가능한 수준의 국어 사고, 국어
에 관련된 논리 내용을 다룸
3. 하지만, 정보량 폭발
4. 완결되지 않은 정보 (생략, 압축, 변형 등의 과정에 왜곡/
논리적 모순 발생)

문제 발생. 해법은?

1.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
2. 정보 가치 높은 내용 + 정보구조 / 설계 처리
3. 1과 2를 바탕으로 이해한 원리 적용
4. 정보 관계/구조 중심 필수 처리

문법**(feat.평가원의 관점觀點)**

평가원 피설 문법 교수학습목표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

1. 절대로 어려운, 심화 개념, 혹은 몰라서 틀릴 개념을 출제하지 않는다.
2. 절대로 교과서 수준의 누구나 다 아는 개념 수준에서 나온다. (안 믿기면 얼마든 확인 가능! 14~20기출)
3. 평가원 피설, 중세국어 교수학습 목표
 - '현대 국어, 문법의 논리적 설명을 위해'
 - 9개념만 암기. '논리적 사고의 수단'
 - 현대국어 VS 중세국어 비교 추론
 - 소리 나는 대로 속받음 + 한자어/어휘 문맥 추론
 - 거의 정답!
4. 2009개정교육과정 VS 2015개정교육과정
 - 실제 작년 이것으로 복수정답VS정답 논쟁(평가원 연구교수님/평가원에 영향력 있는 교수님과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 안 보임. **이걸 모른다? = 수능 모른다**)
5. 킬러 문항은 절대로 어려운 개념에서 갈리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즉, 평가원의 출제의도 파악 못해서임. 대부분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보이는 표면적 개념과 실제 문제풀이에서 적용되는 이면적 개념 차이
6. 독서 통합형. 독서 아니다. 문법이다. 따라서,
 - 문제부터. 문법 문제 개념 적용하듯이
 - 필요한 개념 위주 정보처리
 - 필요시 독서 정보 구조처리
 *공부하면, 내신 수준 개념 문제는 누구나 다 맞음.
 *문제는, 킬러/독서 통합/중세국어.
 *문법은 개념/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 측정 목적

#3. 한 장 파이널 손필기,**머리 입력 및 인출 연습****한 장 파이널 백지복습**

수학 공식과도 같은

국어 정보처리 공식을

안 보고 인출해야

당연히 시험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 장 부터는, 한 장 파이널 내용을,

가급적 안 보고, 자기 손으로 써서 입력하자.

#4. 취약점 분석 및 해법 모색

앞의 정리 과정에서 느꼈을 것이다.
지금 자신의 공부의 빈자리. 그리고 해야하는 앞으로의 방향성...
...다행이다. 아직 9월이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다.
아래의 내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해보자

선택 화작. 1페이지 정보전달의 화법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2~3페이지 상호작용의 화법-작문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3페이지 설득의 작문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3페이지 설득의 작문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선택 언어와 매체 - 문법
기초 개념 숙지 정도 :
개념 위계 숙지 정도 :
기초적인 개념 유형 해결 정도 :
킬러 유형에 대한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서정 장르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고전시가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서사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교술 및 기타 장르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독서 전반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과학기술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경제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법률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논리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철학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나머지
 수업 이해도 :
 체화 정도 :
 실전 연습 정도 :
 문제점과 원인 :

 그리고 해결책 :

이제 수능 국어는. 백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5. ~21기출 + 22예비 적용 연습

및 실전 흐름 잡기

*EBS 출제 예상 정리

독서란 독자의 배경 지식과 글의 내용 간의

대화적 활동이다 (feat. 평가원)

도구 교과인 국어과의 특성에 따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처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평가원은 2017,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독서 지
문에서의 흐름을 확립합니다.

현재 킬러 지문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갖습니다.

- <경제>
- <법>
- <철학>
- <논리>
- <과학기술>

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합니다.

경제 지문 출제 흐름

-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통화정책>
- 2018학년도 수능 <정책수단과 환율의 변동>
- 2019학년도 9월 <CDS 프리미엄>
- 2020학년도 3월 학평 <순환출자>
- 2020학년도 ebs <Q.E-양적완화>
-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금융위기 전후 정책 변화>
- 2020학년도 수능 BIS

ebs 및 기출 배경지식 전제를 할때의 특징.

1단락에 기존의 배경지식을 압축제시.

문제는.

폭발한 정보량

하지만 동시에 부족한 정보량

즉, 기존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결성이 떨어지는 지문의 특징.

따라서.

평가원 기출-교육청-ebs의 흐름을 바탕으로

평가원에서 전제한 배경지식이 필수.

경제 지문 출제 예상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경제 지문 참조

- 2020학년도 ebs 양적완화-출구전략 지문
- 2020학년도 3월 학평 순환출자
- 2021학년도 ebs 화폐 경제 체제
- 2022학년도 ebs 수특 160페이지 이자율과 총수요

A급

- 2022학년도 ebs 수특 144페이지 완전경쟁시장
+창업의 개념, 기업가 정신
- 2022학년도 ebs 수특 120페이지 리카도 비교우위론

=> 금리와 채권의 관계

- : 채권 매수 => 채권 가격 상승 => 금리 하락
- : 채권 매도 => 채권 가격 하락 => 금리 상승

이유는?

할인율 (2007 수능 기출 참고)

채권가격 변동 (2011 수능 기출 참고)

주식, 옵션 (2005 수능 기출 참고)

=> 각종 파생상품 (금, 원유, 주식, 채권 등등)

=>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자산 가격 변동의 원리

이제 수능 국어는 배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경제 지문 학습법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3. 다뤄질 지문은 위의 내용과 구조의 연결선상 확률이 매우 높음을 전제하고 학습한다.
4. 특히, 경제 위기에 따른 반응, 양적완화, 출구전략

법 지문 출제 흐름

<법>

2019학년도 6월 <계약자유원칙+비례원칙>

2019학년도 수능 <거래에서의 채권-채무>

2020학년도 9월 <동산의 소유 : 점유>

법학 지문 출제 초창기에 감을 못 잡던 느낌에서,
(2014~2016)

확립된 현행 수능에서는

법학 지문들은 융복합 지문이 대부분.

2017학년도 수능 <보험>

<경제 + 법학>

2018학년도 6월 <올곡 이이의 수양론-경세론>

<철학 + 법학>

2020학년도 수능 BIS

2021학년도 6월 디지털세

2021학년도 9월 행정입법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실
용적 법학 소재를 다루는 흐름.

동시에 다른 영역과의 융복합 가능성, 특히 과학기술과
의 융복합 가능성 매우 높음

법 지문 출제 예상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법 지문 참조

2021학년도 ebs 시효제도

2022학년도 ebs 수특 149페이지 계약지문

A급

2022학년도 ebs 수특 43페이지 상속제도

2022학년도 124페이지 행정관료-책임성-행정법

-법체계 관련 출제 가능

추가로...

=> AI를 비롯, 4차 산업 혁명 소재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대응의 문제-해결 구조의 지문

법 지문 학습법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3. 정보량이 폭발하거나,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잡는 형태의 내용-구조가 유일 가능성이 큼을 미리 대비할 것.

철학 지문 출제 흐름

〈철학〉

인류 사상사를 다루는 흐름에서, 중요함은 물론,
어쩌면, 인류의 유일한 유산.

2018학년도 6월 〈올곡 이이의 법제개혁론〉
〈유학+이기론〉 => 동양 철학

2018학년도 수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형이상학 vs 자연과학〉 => 서양 철학

신학 vs 철학 vs 자연과학

관념론 vs 경험론

위의 두 축에 따라,

동서양 모두는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철학 사상을
를 발전시켜 왔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험주의의 발달,

결국 형이상학을 비롯한 관념론은 도전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양 철학과 과학기술은 상호 진보,
동시에, 사회 역시 크게 진보한다.

하지만,

그 당시 발전된 서양 과학 기술이 전래되었음에도,

성리학적 질서에 매몰된 동양은,

서양과학기술을 나름대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나,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청나라와 조선은 모두 쇠국, 멸망.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동양 최강대국이 된다.

이런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 사상의 흐름
과 동양에 전래.

이러한 흐름이 확립된 지금은?

2019학년도 6월 〈서양 의학의 동양 전래〉

2019학년도 수능 〈서양 우주론의 동양 전래〉

그리고?

물리학, 과학 기술과, 철학의 교섭 연장.

특히,

통일장 이론-초끈 이론으로 이어지는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 결정론의 흐름에서 그에 대항하는

2020학년도 6월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

이어지는 흐름은

22예비평가 동일론 - 이원론

이에따라,

철학 지문 출제 예상**S급****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철학 지문 참조**

2021학년도 ebs 신명론

A급**B급**

22학년도 ebs 수특 65페이지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

22학년도 ebs 수특 73페이지 부와 행복의 관계

22학년도 ebs 수특 77페이지 사전 학파론자들의
토지개혁

22학년도 ebs 수특 89페이지 진보 사관의 형성과
변화과정

22학년도 ebs 수특 93페이지 존재론적 환원주의

22학년도 ebs 수특 101페이지 니체의 언어관과 진리

철학 지문 학습법

-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 3. 최근의 과학기술-AI-멀티버스-가상세계에 관련한 회의론과 철학적 담론을 다룰 가능성이 큼. 기존 기출 연계의 힘이 커지면 킬러로 작용 가능성 매우 높음.

논리 지문 출제 흐름

<논리>
철학, 법학, 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

2017학년도 6월 <유비논증>
수준의 평이한 유형도 출제되었으나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 vs 총체주의>
지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특징

완결성이 떨어지는 정보

따라서, 철저하게

1. 주제

2. 구조

3. 하향식 + 출제양상

분석이 필수로 바뀐.

특히, 논리적 사고에 관하여 대중이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20 수능에 출제된 베이즈주의자에서 시작.

수능 국어에서 출제되는 논리적 사고의 종류는

- 연역법
- 귀납법
- 유비추론
- 변증법
- 논증법
- 비판/반박
- 에 이어서

확률에 기반하는 베이즈주의적 사고
칸트 지문 기반의 문학-관습적 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업에서 다뤘듯이.

평가원에서는

- 개념/어휘력
- 사실적 사고력
- 추론적 사고력
- 비판적 사고력
- 적용/창의력으로

수능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념/어휘력

독서 정보처리 이론, 문학 개념어, 문법 개념어등이 이에 속하며, 기출/ebs/고1법교과 수준의 어휘 역시 기본 전제 역량.

사실적 사고력

1. 문자를 있는 그대로 읽고
2. 단어 차원의 의미를 파악하고
3. 문장 수준의 구조에 따른 의미를 파악하고
4. 문단-글 수준의 구조에 따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독자의 배경지식 바탕 글의 내용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과정까지를 규정함.

일반적인 일치문제,

지문에 A라는 정보가 있으니 선지 A는 옳다라는 판단 등에 쓰이는 기초 of 기초.

수학으로 치면 사칙연산 수준의 역량

문제는, 이 차원을

독해력의 전부

또는

시력문제

또는

논리적 사고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문제임.

추론적 사고력

평가원에서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는 엄밀하게 언어(매체에서 쓰이는)

1. 전제 기반 (기초 개념 기반)
2. 현상 Data 수집
3. 전제+현상 Data 바탕 경험적 가설설정 (탐구학습)
4. 가설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논리적 사고)
5. 사고 과정에서의 논리 확립

을 주로 '논리'라는 명칭을 부여하며,

수학-논리학 용어와 수능 국어에서 겹치는 부분은

연역법

귀납법

유비추론

변증법

논증법

비판/반박

차원임.

문제는, 전제/집합/범위/가정에 따라

참/거짓 판별 혹은 가능성 판별이 되는데

논리학 시험이 아니므로, 절대로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 소모를 원치 않음.

따라서, 주제-구조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처리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지문 분석 및 선지 사고 흐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임.

다만, 필요하다면 수업/해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의 영역을 확립함을 추천함.

그래야 수능에 최적화 된 사고 흐름을 세팅하고 수능 대비 가능.

이제 수능 국어는. 배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비판적 사고력

근거 바탕 판단
근거 바탕 비판
등을 비판적 사고력의 영역으로 놓음

논증/비판은 이곳에 속함.

적용/창의력

논리/논증의 영역으로 넣기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연결할 수 있는 정보들,
사고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 영역으로 넣어
다름.

인간은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둘 다 하는데,

사실, 과학과 인류의 발전/진보는
천재의 직관적 사고가 내딛은 발걸음을
후배 학자들의 논리적 사고로 켜걸음 따라가는 과정에
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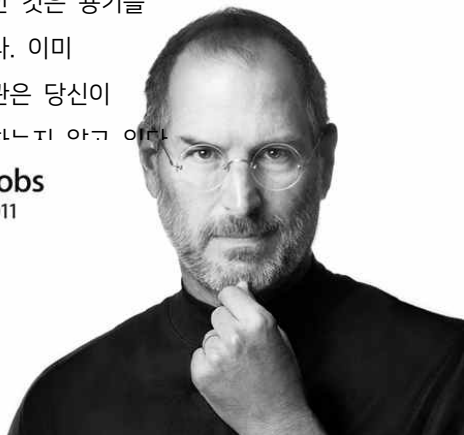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미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마음의 의치나 지 아고 이다

Steve Jobs
1955-2011



그러면 다시...

논리 지문 출제 흐름

철학, 법학, 과학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

2017학년도 6월 <유비논증>
수준의 평이한 유형도 출제되었으나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 vs 총체주의>
지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특징

완결성이 떨어지는 정보

따라서, 철저하게

- 1. 주제
- 2. 구조
- 3. 하향식 + 출제양상

분석이 필수로 바뀜
특히 위의 지문 4단락 내용이 이해가 쉽지 않은데,
당연한 것이,
수능 1페이지 정보량으로 압축하여 담아낼 수 없을 정
도의 정보이기 때문에, 생략과 비약, 압축 과정에서 정
보량의 완결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글을 읽어도
읽어도 완벽한 처리가 안 되고,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모
르는 상황이 벌어짐.

이러한 구조적 불완전성은 과학기술 지문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양상.

따라서, 철저하게!

- 1. 주제 (정보가치수)
- 2. 구조 (필요시 도식화)
- 3. 하향식 + 출제양상 (정보군집 등)

2017학년도 6월 <유비논증>
평이. 단. 이 역시. 구조 잡는 것이 핵심.

이제 수능 국어는. 배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2017학년도 수능 <논리실증주의 vs 총체주의>

정보 완결성 없는 4단락.

하지만, 구조로, 주제로 극복!

2018학년도 9월 <고전/양자역학+고전/비고전논리>
과학 융복합 지문.

역시 5단락의 정보 완결성이 없음.

하지만, 구조로, 주제로 극복!

2019학년도 수능 <가능세계>
42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념인
반대관계와 모순관계의 정의를 없음

=> ebs 기출 배경지식을 전제

하지만,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구조' 와 '선지간의 논리
적 모순관계 파악'으로 극복

그렇다면?

소재와 상관 없이

- 1. 정보량은 많은데
- 2. 정보 처리에 충분한 정보는 없는
- 3. 완결성 없는 정보제공 지문

=> 극복은?

- 1. 주제, 정보가치 집중
- 2. 구조, 흐름 잡으며
- 3.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집중
- 4. 동시에, 구조를 철저하게 처리할 것

=> 정답으로 바로 푹툭 떨어지는 경험

논리 지문 출제 예상

앞선, 철학 지문을 참조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논리 지문 참조

2021학년도 ebs 다른사람마음문제(논리)

논리 지문 학습법

- 1. 위에서 다룬 소재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다
- 2. 위에서 다룬 기출 지문들의 구조 처리를 확립한다
- 3. 이해의 가능성 보다는, 구조 처리에서 오는 핵심 원리 이해에 따른 선지 판정이 훨씬 유리한 형태로 출제되므로, 그에 대한 대비.

과학기술 지문 출제 흐름

<과학기술>

2017학년도 6평 퍼셉트론 - AI 지문

*예술지문이지만, 과학기술 특성 존재

2017학년도 6평 음악의 아름다움

2017학년도 9월 콘크리트

2017학년도 9월 사단법인

2017학년도 수능 반추위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

이렇게 흐르는 흐름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함. 위의 지문들 자체가, (물론 이전과 이후의 평가원 구조적 특성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 구조의 활용이라는 현행 수능에서 가장 요구하는 정보처리 능력으로 지문의 시간과 난이도가 똑똑 떨어지는 경험보다는, 뭔가 발췌독이 많아지고, 지문으로 돌아가는 횟수가 많게 느껴질 것임.

하지만, 역시

- 1. 주제
- 2. 구조
- 3. 하향식 + 출제양상은 물론

- 1. 주제 - 흐름
- 2. 문장수준
- 3. 글의 구조
- 4. 출제양상

이 4가지 정보처리 규격에 맞추어 접근시 역시 난이도 낙차가 똑 떨어짐.

그렇다면 주목할 지문은?

2017학년도 9월 열효율

- 논증구조가 있는 지문으로 논증구조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정답의 정확한 단서 확인이 불가능함.

이유는?

- 1. 정보 완결성 없음
- 2. 정보는 많음
- 3.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니 몇 번을 다시 읽으며 시간 지연, 이해는 되지 않고
- 4. 문제 풀며 발췌독하다 운 좋게 선지 골라내는 느낌으로 풀게 됨.

이런 예전의 접근법으로는 더 이상 현행 수능은 시간 안에 풀 수도, 백분위 100에 다가갈 수도 없음.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고전역학-양자역학-양자컴퓨터-고전논리-비고전논리로 이어지는 지문,

2019학년도 수능 서양우주론의 동양우주론 전래와 같이

과학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주요한 이슈가 아니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원리 이해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 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로서

사실상 읽지 않아도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없는 정보군집-단독문항 출제 양상을 갖게 됨.

그렇다면?

이제 수능 국어는. 배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이 지문들에 주목!

2018학년도 수능 부호화

2019학년도 6월 LFIA 키트

2020학년도 9월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

위의 3지문의 특징은

역시,

1. 정보량은 많은데
2. 정보 완결성이 떨어져
3. 정보처리가 완벽히 되지 않아
4. 우리의 기존 접근법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지문

하지만

1. 주제
 2. 구조
 3. 하향식과
 4.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
- 자연스레 풀리는 문제-선지를 확인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2019학년도 9월 STM

마지막 단락에서 보통 터지는데,

마지막 단락 내용은

- ❶ 구조
- ❷ 과정
- ❸ P-S 구조

의 구성이고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면 공략이 매우 쉬워짐.

2020학년도 6월 개체성

1~2단락 정보군집

3~6단락 정보군집

으로 주제 복합적 구성임을 확인

동시에,

사실상 41번 문항은

- ❶ ebs 연계 배경지식
- ❷ 최고수준의 피지컬

이 아니면 뚫을 수 없음

그래서 27년 수능 역사 최악의 오답률

만점자 65명이 불과하는 시험이 된 것임.

하.지.만.

역시나,

도식화

이를 바탕으로,

접근틀은 있음.

문제는.

기존의 수능 접근 틀

+

현재의 수능 접근 틀

둘이 혼재된 상태에서

실전에서 피지컬로 뚫어낼 사람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봐야함 (물론 정답률은 15%이지만, 만점자는 65명이고, 이는 수능 국어의 특성상, 잘못된 사고로도 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야하고, 잘못된 사고로 문항 하나 하나 통계적 확률을 구하면, 결국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여, 만점자 65명이라는 결과로 귀결됨)

과학기술 지문 출제 예상

앞선, 철학 지문을 참조

S급

배인호 초격차 국어 시즌2 과학기술 지문

참조

2020~21학년도 ebs 지구냉각설, 오로라(구조 처리 참조)

22학년도 ebs 수특 199페이지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차량 기술 - 센서 기술은 이미지 센서 기반
 Big data - Machine learning 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위의 수업 바탕 정립 필수.

A급

22학년도 ebs 수특 182페이지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과 세계선

22학년도 ebs 수특 196페이지 빛 텃의 원리와 활용

과학기술 지문 학습법

1. 소재의 연계 보다는 구조의 연계가 핵심이며
2. 정보가치 판단에 따른, 핵심 원리 이해 적용 유형이 추가 됨.
3. 어휘력과 기출 소재 연결이 안 잡혀도 난이도가 치솟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출은 05기출까지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학습법이 될 수 있음.

다.시.말.해!
 이 지문들에 주목!

- 2018학년도 수능 부호화
- 2019학년도 6월 LFIA 키트
- 2020학년도 9월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

위의 3지문의 특징은

- 역시,
1. 정보량은 많은데
 2. 정보 완결성이 떨어져
 3. 정보처리가 완벽히 되지 않아
 4. 우리의 기존 접근법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지문

하지만

1. 주제
 2. 구조
 3. 하향식과
 4.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
- 자연스레 풀리는 문제-선지를 확인할 수 있음.

추가적으로

2019학년도 9월 STM
 마지막 단락에서 보통 터지는데,
 마지막 단락 내용은

- ① 구조
- ② 과정
- ③ P-S 구조

의 구성이고
 역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하면 공략이 매우 쉬워짐.

여기에 주목.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개체성은

현실적으로 ebs 배경지식의 어느정도 활용이 있지 않았으면, 접근 불가.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이므로, 이에 대해 크게 생각할 문제는 아님.

=> 과학 기술 출제 가능 소재들은?

1. 양자 터널링 효과

이는 무어의 법칙과 관련하여, 한계로 지적받는

내용임과 동시에,

전자/양자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확인되는 불확정성 원리와 연결 됨.

동시에 양자 컴퓨터의 원리와 관련한 내용까지 엮여 출제 될 수 있는 소재임.

2019학년도 9월 STM의 원리

2018학년도 6월 고전역학~ 지문의

양자역학/양자컴퓨터 관련 내용과도 관련이 깊음

2. 초끈 이론 -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이 완성하지 못한 통일장 이론은 모든 물리적인 힘, 4가지가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된다는 입장인데, 우주를 11차원, 모든 물체를 1차원 존재로 보면 성립하는 이론임.

양성자/전자를 분리해 나오는 소립/미립자-쿼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음.

배경지식의 중요성 보다는, 구조,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할 것.

3.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크롤링, 자율주행, 데이터 구조

흐름상 출제될 수 밖에 없는 소재들임.

특히, 양자컴퓨터-보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을 수 있음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A형 해시함수,

2018학년도 6월 DNS 스푸핑등)

-문학

사실 문학은 지금까지 출제된 평가원 기출이 약 500+ 작품 수준에(같은 작품 출제도 카운팅 시) 이르는데, 반복 출제 확률이 70%임. 즉, 출제 3작품 중 2작품이 이미 평가원 기출 확률임. 따라서, 기출 작품 학습이 우선임.

무엇보다, 작품의 전체 주제와, 평가원에서 출제 할 때 발췌한 부분의 주제가 다르거나, 작품의 해설을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작품 감상과 접근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음.

따라서, 문학 연계 부분은 실력에 자신이 없거나, 있다면, 최근 기출의 출제 양상을 명확히 인식 한 뒤에 접근할 것.

18~20학년도라고 해봐야 지금까지 8회, 즉, 장르당 많아야 8회 정도 출제가 전부임. 따라서, 원론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절대로 적은 내용이 아님. (심지어 수업을 몇 개월씩 들었는데도, 질문하라면, 원론서 작품을 질문함...)

따라서, 소설론-시론-고전시가론 정독을 바탕으로 - 6평 리허설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 필수.

또한, 출제시 ebs 수록 부분을 그대로 출제하기 보다는 다른 파트를 내는 경향이 매우 강함. 따라서, 해설지 참고 필수

무엇보다 최근은 수능 출제에서, 문학사적 가치, 작품의 해석 능력 평가를 주목하지 않음

서정장르의 경우 '공감'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서사장르 역시 '장면의 함축된 의미 파악'이나, 작품의 구성적, 구조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론서 바탕, 구조 잡는 연습이 필수.

-출제 예상

- 최인훈 광장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현기영 순이 삼촌
- 이호철 나상
- 염상섭 만세전
- 황석영 삼포 가는 길
- 이상 날개

- 최석환 라디오 스타
- 최성각 버려진 것들의 생명력
- 박완서 죽은 새를 위하여
- 신석정 들길에 서서
- 고정희 우리동네 구자명 씨
- 한용운 해당화
- 박재삼 한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김용택 들국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김수영 폭포
- 최두석 성애꽃
- 곽재구 사평역에서
-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김종길 성탄제
- 이육사 광야

- 청산별곡
- 속미인곡
- 만전춘별사
- 채봉감별곡
- 구운몽화왕계
- 국순전
- 호질
- 열녀춘향수절가

이제 수능 국어는. 배인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원에 가장 다가간, 가장 강력한 수능 국어.

여기까지 소재에 관한 내용을 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수능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

1. 시간 안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정보량
2. 훈고주석의 우리 독서 전통을 깨야 함
3. 이 과정에 고착화된 매우 잘못된 우리의 정보처리 습관을 고쳐야 함
4.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길러야 함.
5. 동시에 다변화된 사회에서 어려워진 공감능력을 길러야 함.
6. 비판하는 방법을 익혀야 함.
7.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탐구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길러야 함.
8. 국어사 학습은 현대 국어 문법 현상의 논리적 설명 도구임을 알고 활용해야 함.

이를 정리하는 것은

원론서 전체 복습 + 수업 내용 전체 복습

=> 한 장 파일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볼 것